

“가락이 빠르고 힘찬 ‘평택농악’을 아시나요?”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진풀이 화려하고 생동감 넘쳐



1, 2, 3 평택농악 공연 모습



경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를 중심으로 전해오는 윷다리농악은 1985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지정번호 제11-2호)로 지정됐다.

윷다리농악은 충청과 경기 지역 전문연희패의 윷다리농악과 평궁리 두레농악이 결합한 형태다. 두레 농악은 정초나 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하거나 농사철에 두레 풍물을 치던 놀이다.

평택농악이란 명칭은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 열린 전국 농악 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사용하게 됐다. 1980년 최은창은 당시 평택군의 요청으로 농악패를 구성해 평택농악이란 이름으로 대회에 나가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평택농악은 두레농악에서 하던 지신밟기·두레굿과 더불어 난장굿, 절걸림, 촌걸림 등 걸림패에서 하던 전문연희패적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최은창이 전문연희패에서 활동했고 초기 구성원들이 서울 및 경기 남부·천안·공주 지역에 흩어진 명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즉 평궁리 마을의 두레농악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평택의 두레농악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경기 충청지방 전문연희패의 가락과 판제를 계승한 윷다리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평택농악은 가락이 9~10종류로 많지 않지만, 변주가 다양하다. 또

가락이 빠르고 힘차며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마당일채·쩍쩍이·자진가락·더드레기·삼채·좌우치기·양산더드레기·연풍대·인사굿의 가락이 사용되는 길군악칠채다.

판굿은 굿패들이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갖은 기예를 보여주기 위해 벌이는 풍물놀이다.

30명 정도로 구성된 판굿은 진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당산벌림 대형과 무동놀이가 가장 큰 특징인데 특히 무동놀이에서 보여주는 던질사위·앞뒤곤두·만경창파뚫대사위·동거리와 곡마단은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평택농악의 체계화에 앞장선 최은창은 1985년 평택농악 상쇠 예능보유자로 처음 지정됐다. 이어 상법고의 이돌천, 법고·사물·무동놀이의 김용래가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한편 평택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평택농악보존회’를 만들고 평택농악전수회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 농악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